

2018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8. 7. 1. ~ 7. 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대학교는 California Redding에 위치해 있으며 꽤 큰 대학교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문 대학교 시설은 다양한 단과대 건물이 있는 곳이고 조금 떨어진 곳에 의과대가 따로 존재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적하고 조용하며 차 없이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웹사이트 수업은 주로 포스팅을 할 때 꾸밀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은 어렵지 않았으면 혹시라도 놓치거나 궁금한 부분은 교수님께 질문하여 바로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필요한 수업이 끝나면 나머지 수업시간에는 개인이 맡은 필드트립에 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제는 따로 없었으며 수업준비도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ESL 수업은 영어회화 향상을 위한 영어수업이었습니다.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내도록 했는데, 버거운 감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을 빨리하시고 스페인어를 섞어 쓰시는 바람에 못 알아들은 적도 있지만 점차 적응되기는 했습니다. 과제는 좀 있었고 과제를 해가는 것이 수업의 준비였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4th of July – 미국 독립기념일로 불꽃축제가 크게 열린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같이하는 모든 친구들과 Civic Center에서 불꽃을 감상한다. 준비물은 약간의 돈과 카메라 정도 이고 간식을 사먹을 수 있다.

Turtle Bay – Civic Center 옆에 위치해있다. 전시를 감상하고 레딩 지역의 기념품을 살 수 있다.

San Francisco – 한번 가는데 4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담요와 목 베개 등이 필요하며 돈도 많이 챙겨 가야한다. 버스 뒷자리에 타는 것은 비 추천이다. 멀미를 안 하던 사람도 멀미를 하게 된다. 이동시간이 오래 걸려서 쇼핑할 시간을 굉장히 짧게 주지만 살 곳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념품을 살 생각이라면 많이 챙겨가야 한다.

Pool party – 작은 집 같은 곳 뒷마당의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며 신나게 수영을 하고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놀았다. 선크림과 수건, 갈아입을 옷이 필수이다. 비용은 들지 않는다.

Kayak – 호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았다. 다만 선크림을 충분하게 바르지 않으면 살이 까질 정도로 타게된다. 긴팔, 긴바지의 수영복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아쿠아 슈즈와 모자, 선글라스도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Shasta Caverns – 동굴 안은 서늘하기 때문에 겔옷이 필요하다. 또한 생각보다 걷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물도 챙겨 가면 좋다. 야외에 나갈 시 모자와 선글라스가 있으면 좋다.

Shasta Dam – 대학교 주변에 있는 큰 댐으로 경비가 삼엄하다. 이곳도 생각보다 땀별에서 걷는 시간이 길으니 모자와 선글라스가 있으면 좋다.

Waterworks Park – 작은 워터파크 같은 곳으로 더위에 지쳐 신나게 놀 수 있다. 이때 바닥이 뜨거우니 아쿠아 슈즈 같은 것이 있으면 편하다. 간단하게 간식을 사먹고 짐을 락커에 맡길 것이라면 돈을 챙겨야 한다.

Crystal Geyser factory – 물병을 만드는 공장으로 물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Health Science – Shasta College 의과대에서 이루어지며 다양한 의과대의 모습과 실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Burney Falls Hike – 약간의 산행이 이루어지며 엄청 큰 규모의 폭포를 볼 수 있다. 폭포에 들어 갈 것이라면 타월과 갈아 입을 옷이 필요하다. 간식을 사먹을 것이라면 돈이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는 쓸 것이 없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40도가 웃도는 날씨지만 건조하여 땀은 잘 나지 않는다.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다. 반면 건물 안은 또 완전히 춥기 때문에 겉옷을 꼭 챙겼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위험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미국학생들이 어디서나 조심하고, 조심하라고 일러주는 것을 보면 항상 조심해야한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이층침대로 되어있으나 밑은 책상으로 개인이 이층침대를 모두 쓴다. 화장실은 샤워실 2개에 세면대 5개, 변기 2개로 되어있고 세면대에 비누가 있다. 1층에는 세탁실이 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3대씩 있으며 세제도 구비되어있다. 세탁 후 건조기까지 돌리면 한번에 1달러가 조금 넘는다. 빌딩 사이에는 Commons Room이 있는데 그곳에 조리실과 여과를 즐길 수 있는 탁구대, 포켓볼 대가 있다. 카우치와 텔레비전이 있는 공간도 있다. Commons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식사	학교식당 (0)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차가 있는 현지친구들이 있다면 쉽게 도움을 줘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돈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식당에서 해결했다. 학교식

	당은 무료였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버스가 굉장히 뜸하다. 대부분 이동은 차가 있는 현지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했다. 대학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걸어 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보험료	3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지출	475,000	식비, 기념품 등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케이 팝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관련된 물품을 가지고 가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과 선글라스, 모자, 양산이 정말 도움 됩니다. 건물 안은 에어컨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걸옷도 챙기면 좋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약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기숙사 내에서 신을 편안한 신발(슬리퍼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환전할 때에는 100달러 짜리보다는 1, 5, 10, 20, 50 달러짜리 까지가 쓰기 유용합니다. 한국음식이 많이 그리울 것 같다면 라면과 컵밥 종류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은 신라면 이외에는 모두 걸리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신라면 뿐이며 다른 라면을 먹고 싶다면 마트에 파는 경우도 있으니 구입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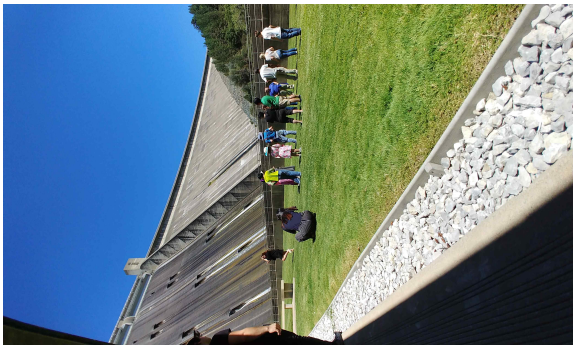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값진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친구들도 친절하고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적응하기에도 쉬웠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도 쉽게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미국의 문화를 느끼고 오니 우리나라와의 문화차이가 더 잘 느껴졌고, 그것을 현지친구들과 대화해 볼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영어로만 대화하다보니 영어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영어 공부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면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San Francisco	Shasta Dam



Burney Falls



Cafeteria 아침 식사



Kayak



4th of July